



금남로 명품코스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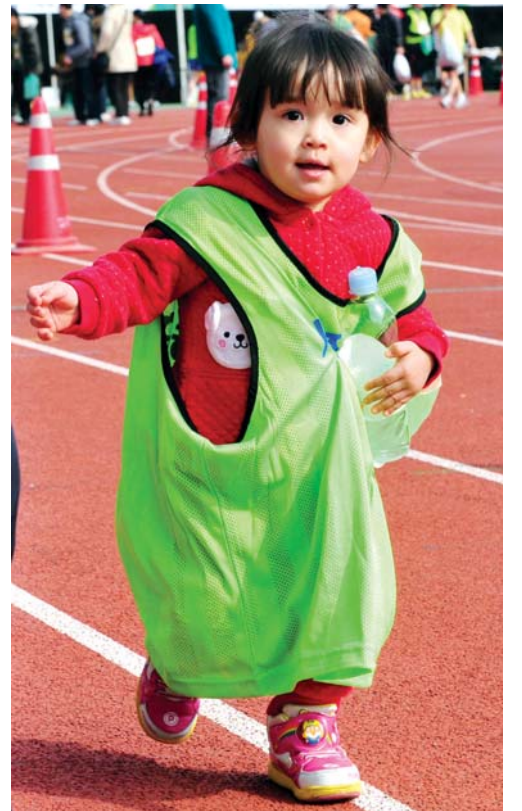
금남로 구 도청앞에서 광주 승촌보를 잇는 명품 마라톤코스가 부활했다. 광주일보보존사앞에서 42.195km 풀코스 참가자 500여명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한마음 된 광주 행복했다 즐거웠다

사진=나명주·최현배·김진수 기자

“아빠랑 함께 왔어요”

가족과 함께 참가한 꼬마 마라토너가 앙증맞은 달리기를 선보이고 있다.



선제보훈(先制報勳)! 소통을 넘어 국민통합

3·1절 마라톤 출발~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강운태 광주시장·배용태 전남도부지사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일보 김여송사장과 내외빈들이 함께 출발버튼을 누르고 있다.



몸도 마음도 기쁘

건강들의 힘찬레이스는 겨우내 얼었던 남도의 대지를 뜨겁게 녹여냈다.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나서 질주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운동복이 불꽃처럼 화사하다.



완주의 기쁨 활짝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웃음 가득한 한바탕 축제였다. 10km에 참가한 여성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통과하자 같은 클럽소속 동료가 팔을 활짝 펼쳐 맞이하고 있다.



“엄마가 해냈어”

완주의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하프코스 결승점에 들어온 한 여성 마라토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광주 U대회 성공 기원

2015년 광주 하계 U대회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열린 응원전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쳤다.



반화점 돌며 물 한모금

승촌보 반화점에 마련된 K-water 급수대. 수자원공사봉사팀이 마련한 생수를 건강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